

수소 통학버스, 최초로 인천시에서 달린다

- 환경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등과 수소 통학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3일 인천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 현대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함께 인천 수소 통학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에 수소 통학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해 환경교육 상담(컨설팅) 기회 제공, 수소차와 관련된 현장 견학 지원으로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인천시교육청은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통학시간이 긴 인천 내 대규모 개발지역 거주 중·고등학생 약 1,200명을 위해 ‘학생성공버스’ 27대를 도입했다. ‘학생성공버스’는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행할 예정이며, 이 중 3대의 수소버스가 올해 7월에 최초로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수소버스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민간기업의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서울시 수소 공항버스 전환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활용되는 다양한 수소버스에 더해 통학버스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수소 통학버스의 도입을 계기로 학생들의 등교길이 편리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라며, “인천시는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학생 통학용, 직장인 통근용 등 다양한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선도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인천 수소 통학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끝.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김유란 (044-201-6881)

1. 추진배경

- ☐ 인천시교육청은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규모 개발지역의 중고등학교에 '학생성공버스(통학버스)' 도입
 - 사업규모는 '23년 27대 시범운행 후 '24년 이후 평가 후 확대 예정
 - ※ '23.7월 수소버스 3대 투입, 향후 신규 차량 출고시 추가 투입 계획
- ☐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연계하여 통학버스 이용 학교에 대한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 인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
 - ※ 환경교육 컨설팅 제공(중등), 액화수소 플랜트 견학 등 수소 관련 현장견학 기회 제공(중고등)

2. 업무협약식 개요

- ☐ (협약명) 인천 학생성공버스 수소 통학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서
- ☐ (時/所) '23. 7. 3.(월), 15:30~17:0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 ☐ (협약기관) 환경부, 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 SK E&S, 현대차, 운수사업자
- ☐ (협약내용) ①인천시 수소 통학버스 확대 도입, ③수소 통학버스 이용 학교 대상 환경인식제고 프로그램 제공
- ☐ (세부일정)

시간	내용
15:30~16:00 (30')	▶학생성공버스 개통식 ·개식사, 내빈소개→학생성공버스 경과보고(교육청)→인사 말씀(교육감)→축사(환경부, 인천시 교육위원회위원장)
16:00~16:30 (15')	▶수소 통학버스 전환 업무협약식
16:30~17:00 (30')	▶학생성공버스 시승식